

－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23. 12. 18.(월) 14:00~16:00

■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 2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목 차



I.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1

II. [발제]

1.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 ... 3

- 이영주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

III. [토론]

1. 먼저 온 미래, 함께 고민할 때 13

- 최재훈 논산·계룡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2.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17

-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3. 지역소멸의 실태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23

- 김 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4. 논산계룡의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주도형 학교체제 구축 방향... 31

-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5. 논산계룡 적정규모학교 유형 구축 추진 현황 47

-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3. 12. 18.(월) 14:00 ~ 16:00
-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공연장(2층)
- 주 제 :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 주 최 : 충청남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및 자리정돈	안내 및 출입명부 작성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김충훈 전문위원
14:05~14:15	10'	내빈소개 ·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오인환 의원 축 사 : 손병륜 회장 (논산시농어업회의소)
< 토 론 회 > ※ 좌장: 오인환 의원			
14:15~14:35	20'	주 제 발 표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
14:35~15:25	50'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10분)
15:25~15:40	15'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40~15:55	15'	청 중 토 론 (질 의 · 답 변)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오인환 의원)

발 제



저출생 · 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

이 영 주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센터교육장

저출생 · 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

이 영 주(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

1.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고민의 출발

과거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우리 사회 ‘세 가지 난제’를 교육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세 가지 난제는 인구절벽¹⁾,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²⁾이다. 이 중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면서도 하나의 난제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향도이촌’이란 사회적 문제가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소멸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선언을 교육부총리가 한 것이며,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개혁의 목표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충격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³⁾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지털 충격은 미래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살펴 보고, 그에 대응하는 충남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봐도 근본적인 해결책⁴⁾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교육이란 한정된 분야의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과 교육⁵⁾ 그리고 주택과 취업 등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없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주택과 취업 그리고 비혼 등 사회문화적 경향 등은 오늘 토론에서는 벗어난 주제이므로, 오늘은 교육이란 한정된 분야로 좁혀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저출생 학령인구의 감소 현황

경제 시사 용어 중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이 있다.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이다.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1)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2)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필연적으로 지방 대학 쇠퇴 → 지방 상권 몰락 → 지역 위기 → 지방 소멸 → 초중등 교육 존립 기반 와해(지방 교육 위기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사실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세계 문제와 과제는 당연히 기후위기 및 자원고갈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중립의 실현이다. 이는 인류의 생존 또는 인간 사회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태환경교육은 미래교육의 으뜸 주제이다.

4) 저출생 대책이 없다. 출업을 하면 원하는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면 평생 양질의 임대 아파트를 갖고, 출산하면 집 근처 혹은 직장의 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고, 아이에게 사교육비를 투입할 시기가 되면 유럽과 같이 대학이 평준화되어 원하는 학과를 골라서 가까운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 이같이 유토피아 같은 상상력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5)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이다.(공교육은 현재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무상교육.)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넘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과도한 사교육비로 표출되고 있다.

달려오면 땅이 흔들릴 정도이므로, 코뿔소가 달려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파급력도 크지만 눈감고 무시하다가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빗대어 회색 코뿔소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가 그렇다. 모두가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대책에 한가하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실제 10년 뒤 학생 수가 절반이 된다) 여전히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지방대학 위기, 지역 소멸 등 심각한 교육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자. 아래 표를 보면 2022년 270만 명인 초등학생이 매해 1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 2033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140여만 명이 된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 10년 뒤 학생 수(2022년 5월 통계청 발표)

시도별 초등학령(6~11세)인구 중위추계(2022~2033)

단위: 천명

시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2년 대비 2033년 감소율
전국	2,701	2,604	2,480	2,337	2,192	2,020	1,848	1,707	1,592	1,508	1,467	1,458	54.0%
서울	400	382	361	337	314	286	259	236	219	205	199	199	49.8%
부산	157	152	145	136	127	116	104	94	86	81	77	76	48.4%
대구	123	119	113	106	99	90	82	74	68	64	61	60	48.8%
인천	158	152	144	136	128	117	107	98	92	86	84	83	52.5%
광주	84	81	77	72	67	62	57	53	50	47	46	45	53.6%
대전	78	74	70	65	61	56	51	47	44	42	41	41	52.6%
울산	67	64	61	56	52	47	42	39	36	34	32	32	47.8%
세종	33	33	34	34	33	32	30	29	28	27	27	27	81.8%
경기	785	764	735	700	664	618	571	531	499	475	464	464	59.1%
강원	72	69	66	63	60	56	52	49	46	44	42	41	56.9%
충북	84	81	78	73	69	64	60	56	52	50	49	49	58.3%
충남	118	114	108	102	95	88	81	76	72	69	68	68	57.6%
전북	91	86	81	75	69	63	57	53	49	47	45	45	49.5%
전남	90	86	81	75	70	65	59	55	51	48	46	45	50.0%
경북	128	123	117	109	101	93	84	78	72	68	66	65	50.8%
경남	188	180	169	158	145	132	119	109	101	95	92	90	47.9%
제주	43	43	41	39	37	35	32	30	28	27	26	26	60.5%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실제 200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는 생각보다 완만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2016년까지 출생아 수는 거의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4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하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런데 2016년을 경과하면서 출생아 수가 매해 2~3만 명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급감하여 2022년에는 24만 9천 명까지 떨어졌다. 불과 5~6년 만에 40만 명대에서 15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초

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충남의 각 시군별 학령인구(초입연도 기준)도 2023년까지 하락 폭이 완만하다. 18,000여 명에서 17,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급격한 변동이 나타난다. 결국 10,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 충남의 연령별 학령 인구 변동(충남교육청)

출생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학년(2023)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초입연도	2029	2028	2027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천안	3,796	4,275	4,469	4,767	5,109	5,555	6,317	6,751	6,552	6,634	7,285	7,065	6,979	6,510	6,836	7,114	6,371	6,261
공주	337	348	384	406	423	469	537	601	645	682	752	747	749	701	743	803	865	780
보령	349	384	407	465	454	541	607	618	697	670	736	802	786	740	813	802	766	745
아산	1,899	2,135	2,401	2,787	3,055	3,341	3,687	4,001	3,744	3,846	4,320	4,125	4,073	3,783	3,810	3,909	3,478	3,186
서산	1,019	1,012	1,125	1,200	1,320	1,400	1,570	1,725	1,709	1,693	1,891	1,753	1,792	1,719	1,760	1,864	1,626	1,521
논산	370	413	463	555	589	670	714	772	813	783	891	885	871	850	974	977	934	879
계룡	197	215	256	285	350	419	432	487	510	510	568	558	589	611	619	689	709	634
당진	892	993	1,083	1,192	1,321	1,469	1,548	1,762	1,700	1,688	1,827	1,833	1,794	1,659	1,650	1,729	1,506	1,362
금산	129	138	166	180	170	199	247	256	265	310	339	367	401	428	429	494	428	401
부여	130	138	169	184	215	242	273	356	357	349	392	377	401	393	417	448	440	455
서천	128	158	176	156	191	172	219	250	270	283	275	325	320	283	313	315	301	351
청양	77	89	88	85	94	108	118	124	137	158	171	168	179	162	181	175	175	178
홍성	402	494	539	609	625	738	799	830	827	856	973	947	946	929	959	994	947	859
예산	220	234	260	300	271	331	355	409	431	463	511	520	513	518	520	622	555	567
태안	161	165	202	215	253	245	339	302	336	364	411	391	349	391	439	442	420	427
충남	10,106	11,191	12,188	13,386	14,440	15,899	17,762	19,244	18,993	19,289	21,342	20,863	20,742	19,677	20,463	21,377	19,521	18,606

3.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생 수 급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혹은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필요 교원을 줄이게 된다. 경제적 논리만 따지는 기재부에서 교원의 총량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교원 수 감축과 학교 통폐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단지 양적 변화로만 인식하고, 양적으로 대응하는 데 익숙한 경제부처의 논리에 따르면 많은 학급과 학교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 교육 붕괴와 지방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시스템과 교육환경 전반을 재구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양적인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귀착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차후 노동인구 감소로 귀결된다. 노동인구 감소는 줄어드는 비중만큼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든 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담은 추가로 증가한다. 향후 10년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⁶⁾가 은퇴하고 고령화

6) 인구 통계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붐은 1차가 1955년 ~ 1963년 시기이며, 2차가 1968년 ~ 1974년 시기이다. 이 시기에 출생아가 100만 명 가까이 됐던 것이다.

문제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이 같은 추세는 새로운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이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단순히 계산하면,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즉 노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의 후속 세대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생산 능력 또는 노동능력을 발휘해야 사회가 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이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공장 및 사무 자동화 등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장착 로봇 도입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충남을 비롯한 도단위 지역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비중 확대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⁷⁾

4.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학령인구 감소 시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후속 세대 전체가 노동 시장에서 퇴직한 훨씬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역량 또는 변혁적 역량⁸⁾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제 엘리트를 키워내는 것만으로는 사회 자체를 유지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동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 교육 대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의 웰빙⁹⁾을 추구하는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학생들의 보편적이고 전인적 발달은 뛰어난 노동 능력을 갖추게 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축소된 노동인구가 사회 전체를 부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공동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노동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만성적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양극화로

7) 그 외에도 연금 개혁의 추진, 정년 연장, 청년 실업의 증가 등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8) 2018년 발표한 OECD의 '교육2030'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행위주체성'을 확보하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지향해야 한다. 즉 나와 사회의 경제적,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행동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를 변혁하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변혁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변혁적 역량에는 3가지 하위 범주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 갖기' 등이 있다.

9) OECD는 학생 웰빙을 '학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 상태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생들의 개인·학교·학교 밖에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은 새로운 인재상, 학력관, 교육안전망 구축,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초한 학교 교육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

인한 사회적 갈등에 더해 세대 갈등과 혐오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공동체적 성장과 발달은 사회적 생존과 지속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모든 학생들이 시민성을 갖춘 협력적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인적 발달의 중요 원리 중에 하나가 개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개별화 개인화 교육¹⁰⁾이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동학습과 개별화 교육의 결합은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중요한 교육원리이다. 그래서 적정한 ‘학급 당 학생 수’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적정한 교원 수 확보는 당연한 이치이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을 감축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등 교육환경 향상을 포기하면 미래교육을 실천할 수 없다.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교원 수 확보와 교육재정의 확충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속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을 적극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면학습과 원격학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혼합수업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에 기반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인구 감소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시대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적응하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에 중요한 도전 과제를 던진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교육의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통합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의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미래교육 2030을 발표했다.

5. 충남미래교육 2030

충남의 미래교육 2030은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요구 다변화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및 환경 재난에 따른

10) 2021년 UNESCO가 발표한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은 발달 단계마다 그에 적절한 학습 지원 방식이 있으며 학습자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학습을 개인화시키는 건전한 방법들이 있다. 교사는 진정성(authentic)과 관련성(relevant)이 있는 교육을 위해 학습을 개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 활동을 통해 특수한 요구를 지닌 학생을 포용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면서 학습을 개인화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SDGs)¹¹⁾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의 생활화 ▲소득, 사회적 지위 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 미래사회의 전망과 변화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충남미래교육 2030은 미래사회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협력’을 5대 전환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전환 과제는 서로 조율하고, 의존하며 동시성을 갖고 진행된다.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나아간다.

첫 번째 교육과정 전환은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지원하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활발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한다. 둘째, 공간혁신 전환은 학습과 삶을 이어주는 유연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학습, 놀이, 쉼을 고려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복합형 공간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생태 전환 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다. 머리 속으로 아는 인지 교육이 아닌 생존 교육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탄소중립 3.6.5 운동과 초록 발자국 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넷째, 디지털 전환 교육은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즉 인공지능을 장착한 디지털 교과서 등 교수학습 환경을 스마트화하여, 학습 이력과 성장발달 이력을 누적 관리한다.

아울러 교육정보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 충남교육은 마주온 등 미래교육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학부모 디지털 활용 능력 지원 체제도 구축하였다. 다섯째, 교육협력 전환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다. 지역공동체 연계 학습망, 안전망 확대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발굴로 진로 연계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충남미래교육 2030은 ‘오늘의 충남교육에 내일을 담는 그릇’이다. 이는 그동안 노력해 온 혁신교육의 토대에서 충남미래교육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에 대한 시대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하는 실천적 제안이다. ‘인간 . 기술 . 자연이 공존하는 충남교육’이라는 비전과 함께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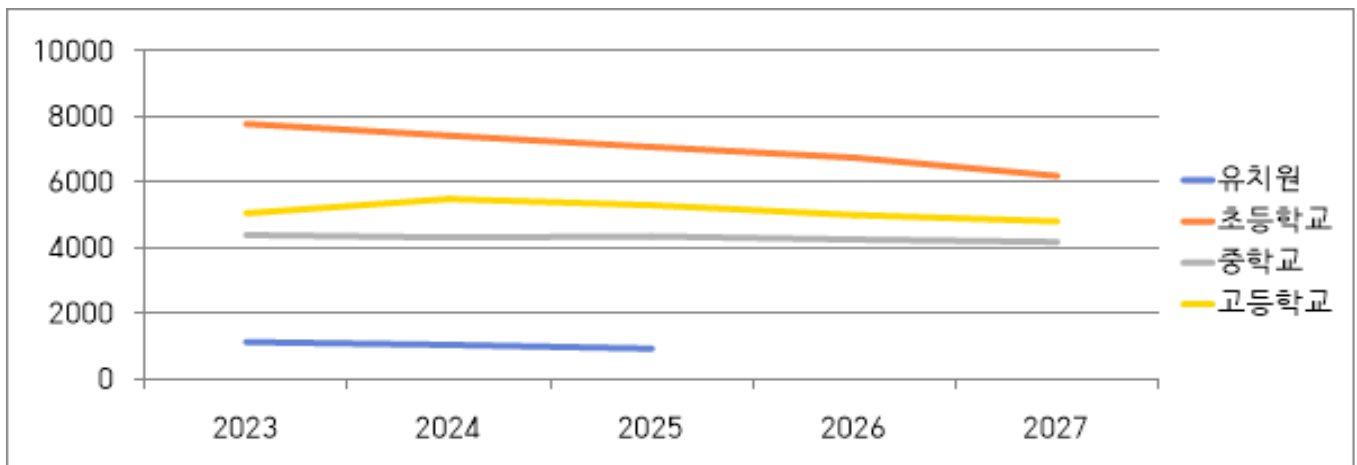
11)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생물 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경제, 사회구조 등)를 해결하고자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그 외에도 충남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였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지역기반 혁신미래교육을 확산하고, 마을중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돌봄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성인 학습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성인 문해교육을 확대하여 문해 학습자의 기초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였다.

6.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 논산의 학생 수 변화 추이(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30명 이하 학교는 초 4교, 중 1교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를 지역 교육의 조건이 아닌 지역 교육의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정책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미래형 학교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복지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한 적정 규모의 미래학교¹²⁾를 추구하는 것이다.

12) 미래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클라우드 방식의 전자 교과서를 사용하며, 전자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거나 기록한 것은 곧바로 서버에 저장되어 학습 이력이 누적 관리된다. 그리고 수업 중에 개별 학생의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특화도시를 선포하고,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AI체험실 외 11실)를 구축하여 교과연계 인공지능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과 연계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대학과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학교의 돌봄을 강화하는 행복교육지구도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문화재 탐험대 그리고 놀미종합체험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드론, 코딩, 가상누리터 교육과 상상이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태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자유로운 개인과 행동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평화, 환경, 인권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한다. 또한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과 참여의 다우리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학습 내용을 전자 칠판에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문제 풀이와 기록이 전자 칠판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학습 속도에 따라 학습 내용과 평가 문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토의토론, 프로젝트 발표, 융합수업 등의 특화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먼저 온 미래, 함께 고민할 때

최 재 훈

논산·계룡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먼저 온 미래, 함께 고민할 때

최재훈(논산·계룡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재훈입니다.

이번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 주제를 받고 요사이 전에 없는 게임체인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챗gpt’에게 뭔가 참신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못지않은 그림 실력도 있다고 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 못지않은 전문 지식도 있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그닥 시원치 않은 답변에 조금은 실망을 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성 1명이 낳을 아이의 수가 지난 7월 기준 0.7명이 됐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앞으로 30년 후면 1명의 2~30대가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의 수가 3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절벽은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인구의 소멸 등으로 인한 학교의 규모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위기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챗gpt는 교육과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현장 실습을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최신 교육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 간 협업을 촉진하여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자원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교 조직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은 이미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연구 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계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적 변화를 인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달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동까지 난무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습시다만, 그것은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도 늘 동반하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각하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식을 이끌어 주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 및 교육청 산하에 다양한 학부모 단체가 존재하며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하며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계활동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돕고 계십니다.
그 중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는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목표와 가치를 대변하며 학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교육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다양한 니즈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이를 저희 같은 운영위원들이 기관과 학교에 전달하여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 및 학교 운영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장 및 위원들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학부모, 지역사회 리더, 지역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시어 발전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에 이어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로 우리 아이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손 미 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손미라(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출산정책으로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보고서 ‘2020년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여성한명이 평생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이 세계 평균인 2.4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무척 다양하고도 복잡적입니다.

경제적인 불안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생활고와 높은 주택마련비용,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육아시설 부족과 과다한 사교육비 등 주요 요인이고 현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이 어려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또한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중요시되고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퇴색되면서 육아와 돌봄은 물질적인 가치화가 어렵다보는 인식 속에서 경제적 물질중심인 자본주의에서 물질의 가치화가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이 출산보다는 사회적인 노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이외도 가족가치의 변화, 성 평등의 문제, 지나친 경쟁사회가 원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전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휴가휴직제도, 보육시설, 양육비의 부담을 국가가 같이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출산율이 가시적인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경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아동을 포함한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과 여성에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한 통합적인 정책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과 경제적인 지원과 여성이 양육과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 정책이 발달하고 안정화되어야 한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미혼자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또한 저출산과 학령인구 수 감소로 등에 대응해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해나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교육 2030은 ‘오늘의 충남교육에 내일을 담는 그릇’이라는 슬로건으로 혁신교육 토대로 기존교육에 대한 시대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비전으로 ‘인간·기술·자연이 공존하는 충남교육’이라는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목표 실현이라는 가치가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의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교육자와 학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앞장을 서서 지시하는게 아니라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교실 분위기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놀이활동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사가 인식하는 창의성을 촉진하는 공간 특성의 중요성과 현(現) 교실공간이 얼마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지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창시자 프리벨(Frobel)은 아동의 놀이 그 자체가 곧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활동을 놀이로 보고 있어서 놀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놀이를 통해서 사물을 익히고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놀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긴장과 피로를 해소시켜 주어서 분노나 적개심을 건전한 상태를 갖게 해 준다고 합니다.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는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오락)의 합성어로 게임과 같은 오락성 즉 도전성, 몰입성, 모험성 등의 학습활동에 재미 요소로 부가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의미합니다. 교육에 재미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즐거움과 유쾌함을 안겨주고 놀이라는 특성으로 아이들에서 학습에 대한 열증을 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사입장에서 학생들의 놀이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시흥초등학교는 학교놀이 공간을 재구성한 후 학교놀이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주)손오공 후원으로 2016년 바우건축사무소와 함께 경기도 시흥초등학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4학년, 6학년 총 30명 대상으로 4개월동안 주1회 60분씩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면접, 뇌파검사, 그림검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평가 했을때 학습태도가 좋아졌으며, 주의집중 문제 감소, 불안·우울증 감소가 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뇌파검사에서는 전두엽의 건강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알파파 파워스펙트럼 분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와 또래 관계에 대한 만족감도 상승하고 놀이현장에 따르면 놀 공간과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놀이를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고, 문제해결적 사고와 협력,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놀이 중심 학습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표적 교수법으로 능동적학습, 협동협력학습, 탐구학습, 경험학습, 안내된 발견학습,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몬테소리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즉 아이들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로서 배움을 즐기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동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떠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초등학교는 사회적 관계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복잡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규모와 관계의 확장과 변화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이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복도나 계단 근처의 유희공간, 학교 밖 정원, 학교건물 입구, 놀이터 등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쇼파를 배치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을 위해서는 바체어 의자나 무드 등이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면서 이를 표현하고자하는 욕구가 발달하면서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옵니다.

교실의 벽도 일괄적으로 꾸미기 보다는 학생 각자의 공간을 재정의하고 학생들 스스로 마음대로 꾸미도록 한다면 학급 전체적으로 일관성은 떨어지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공간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교육은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른 따라가는 학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교실 내에서 개별화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관심사와 학습 스타일, 학습 목표나 학습 진행에 따라 교사는 각각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개별 학생에게 제공되는 공간 크기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기구와 기자재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나노·바이오 기술들이 우리 사회와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아이들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업의 세계 또한 많은 변화가 생길것입니다.

자유롭게 노트 필기나 그림을 그리고, 계산을 하는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저장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생 1인당 개별 PC나 태블릿이 제공되어야 이를 이용한 개별 학습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학급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보편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가 걱정이고,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개별화 학습 공간이 요구되는 한편에는 학생들이 모둠 학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소규모 모둠 활동은 학급내에서 3~5명 학생으로 구성되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도형 교육에서는 학급에서만 모둠 학습이 아닌 학급 간, 학년 간, 다른 지역의 학교간의 토론, 토의, 협동 학습 프로젝트를 해 보는것도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 내에는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며 바로 검색을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 및 학부모님 대상의 놀이연수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놀이및 축제 학교의 다양한 행사나, 수학여행, 소풍 등 교육과정에서 놀이 축제 준비 내용을 포함 재구성하여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안전수칙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주인공이 되는 청소년축제와 놀이 문화가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에 미래교육은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모든 아동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학생주도 개인별 맞춤 학습과 개인의 강점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소멸의 실태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김 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지역소멸의 실태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김 구(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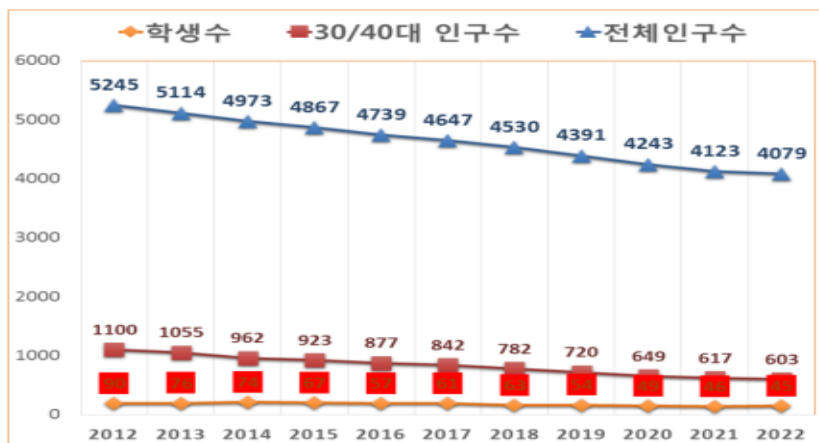
1.저출생,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사회의 실태

저출생, 인구소멸이라는 명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미디어를 통해 흔하게 접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바꾸고 변화해서 극복해 나가야 함이 미래 세대를 위한 당연지사이거늘 어찌 보면 이제는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인구소멸에 대한 체감이 둔할 수 밖에 없겠지만 충청남도 논산시의 조그만 광석면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한해가 다르게 체감하는 문제이기에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소멸과 그것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다.

삼국시대 백제 앞에 대자를 붙인 대백제 융성시대를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충청과 호남의 너른 평야에서 나오는 풍부한 곡물이 한 몫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몇천년 동안 이어온 농업 생명시대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밀물 앞에 맥없이 작디 작은 산업으로 전락 하였고, 이제는 말로만이 식량 안보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광석면의 인구도 맥없이 줄어들게 되었다.

□ 광석면 연도별 인구수 변화 추이



몇십년 전의 융성했던 농촌시대를 희망고문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지난 십년간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광석면의 인구가 5,245명에서 4,079명으로 약1,200명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인세대의 자연감소로 치부 할 수 있겠지만 30~40세대의 인구 감소폭을(약500명 감소) 보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감소폭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학교 학생수가 급감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광석초 학생이 2023년 현재 전교생 31명이라는 폐교위기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지역의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면 그 지역의 미래세대가 전무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존재하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광석면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 소멸에 있어서 일차적인 지역 소멸은 바로 농촌에 먼저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농촌소멸의 원인 분석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지역 소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농촌의 원인, 그것에 관한 고찰은 여러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 도시로의 성장이 지속되듯 농업이 충분한 소득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소멸로 가는 단계에 접어들진 않았을 것이다. 한때 귀농정책으로 딸기재배를 하기 위해 투자했던 일부 귀농인들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보장 받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차원의 문제는 현재 논점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거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아이들의 돌봄 문제이다. 유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등학생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오후 4시가 하교하는 시간이다. 시내권 학생들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고 널려 있는 학원 간판을 찾아 분주히 다니고 집에 저녁때쯤 학원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광석면을 포함한 대부분 면지역에는 그 흔한 학원 하나는 고사하고 공부방 같은 시설이나 돌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하교 후 집에서 혼자 핸드폰과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기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찾아 떠나야하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고 그와 연계하여 다시금 초등학교가 폐교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3. 지역사회 위기의식의 필요성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인구소멸의 1차 피해가 농촌에 직격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안과 자세는 어떠할까? 아마 대부분 국가차원이나 지자체에 그 숙제를 떠넘기고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굳이 그러한 문제제기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지역 사회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안주감을 갖기에는 다가 올 미래가 비참하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세대가 계속 이탈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각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의 평균연령은 한없이 올라만 갈 것이다.

지금 현재도 농촌의 빈집 처리 문제가 지자체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며 한 마을의 30%가 넘는 빈집이 나온다면 현 주민들조차도 마을에 거주하는데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순차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해가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4. 학교 폐교위기에 대한 광석면 지역사회의 대응

현재 광석면에 거주하고 있는 4천여명의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소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광석면은 대표적 주민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성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현 사안에 따른 지역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였다. 현거주자의 시내권 이주등 이탈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방과후 자녀의 돌봄과 학습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파악과 함께 활용할 계획안을 구상하였다.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성과 수요가 존재하나 시간의 배분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다. 광석면에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작은도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공간에 대한 조건은 만족하였다. 이렇게 지역회의를 거쳐 장소를 마련하고 마을강사를 모집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광석면 주민자치회 마을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초기에 초등 고학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농촌지역 학생의 절대 부족분인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평상시 부모님과 가기 어려운 도심지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탐방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위한 방안이었다.

여기에 지역사회 단체, 주민들의 협약과 협조를 통해 학교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미래의 문제로 수반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하였다. 광석자율방범대와와의 협약을 통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주2회 야간 귀가 차량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용소방대와 연2회 이상 소방안전과 건강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지역에 산재한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생태계에 있어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존재하여 해당마을의 도움으로 반딧불이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에서만 학습하던 부분을 현장을 통해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 광석마을학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 광석마을학교 학습프로그램(중등반)



▶ 광석자율방범대 야간 귀가지원



▶ 광석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



▶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계 체험



▶ 광석마을학교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러한 지역사회 동참을 광석면 주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광석면 사람&니우스”라는 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를 유지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문화체험 중 서울 롯데월드 탐방이 있었는데 예산으로 학생들 식사제공이 불가하여 밴드를 통해 2만원씩의 후원금 모금을 제안하였는데 불과 일주일만에 후원금이 5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되어 학생들에게 식사 제공 후 남은 금액을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한 대표사례가 있다.

5. 광석면 지역사회 참여에 따른 성과

광석면은 농촌소멸에 따른 학교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있는 학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2년간 초등학교 학생의 도심권 이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광석마을학교는 3년차에 접어들면서 늘봄교실까지 유치하여 유치부와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방과후 저녁돌봄까지 책임지는 마을학교로 성장하였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하나씩 풀 수 있는 조건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상생의 기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 시스템을 충분한 외부 홍보를 통해 2024년도 입학 예정 학생이 28명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는 어린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방안으로 광석면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 참여를 통한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상기시켜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논산·계룡의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주도형 학교체제 구축 방향

이 우 열

논산중학교 교장

논산·계룡의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주도형 학교체제 구축 방향

이우열(논산중학교 교장)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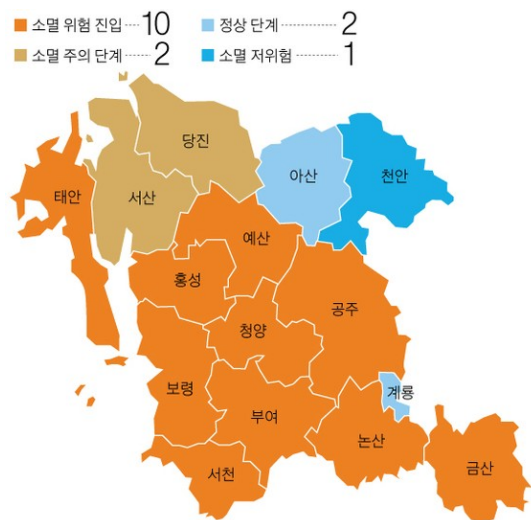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쇠퇴,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집중 현상¹⁾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이 많은 논산계룡 지역은 고령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변동의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논산시는 인구소

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계룡시는 정상단계 지역으로 지정²⁾한 것을 보아도 우리지역의 인구 구조 변동 양상이 복잡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1]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학생 수 감소 문제로 직결되며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급속한 학생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지역 간 편차도 심하다. 더욱이 농촌이 많은 논산·계룡의 학생 수 감소현상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한 진행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교육적 문제는 다양하다. 도시와 농촌의 학교 규모 불균형 심화와 소규모 학교 증가는 그 지역의 교육환경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수반한다. 또한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 모둠 및 동아리 활동, 협동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제한을 주는 등 학교 교육의 여건을 열악하게 만든다. 나아가 학교 통폐합은 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소멸을 야기하며, 마을의 심리적,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학교의 일방적인 폐교는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준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장거리 통학과 그에 따른 정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가져다 준다. 결국 학교의 소멸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과 지역사회의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얻은 교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사회에 걸맞는 교육은 사회·생태적 공존과 공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경쟁과 능력주의를 넘어선 협력과 상생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그림 33] 인구소멸 지역

출처 : 충남인터넷뉴스(<http://www.shanews.com>)

1)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변동 상황을 '지역변동'으로 통칭, '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칭하고자 함
2) 89개 인구 감소지역 중 충남소재 지역: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행정안전부, 2021)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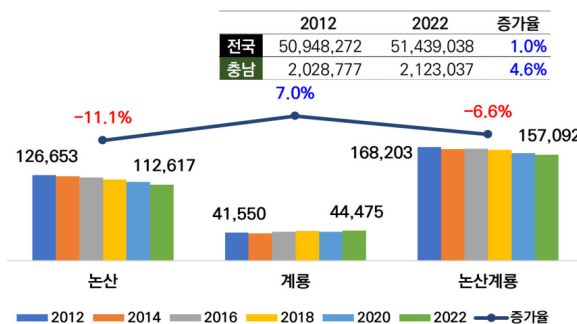
본 토론문에서는 논산·계룡지역의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고민해보고 충남교육청이 준비하고 추진 중인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산·계룡지역의 인구구조 및 교육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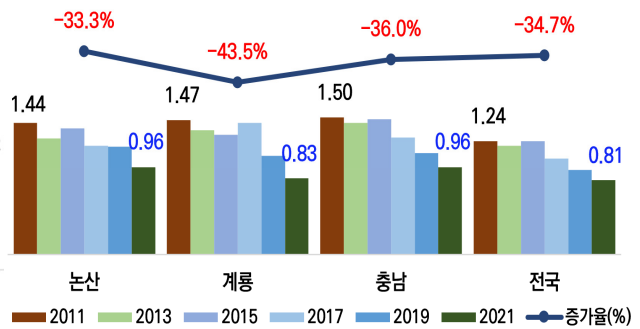
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림2]와 같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논산계룡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0%, 충남 4.6%가 증가한데 비해 6.6%가 감소하였으며, 논산시 지역만으로도 보면 11.1%로 큰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림4]에서 보듯이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 또는 충남과 비교해도 급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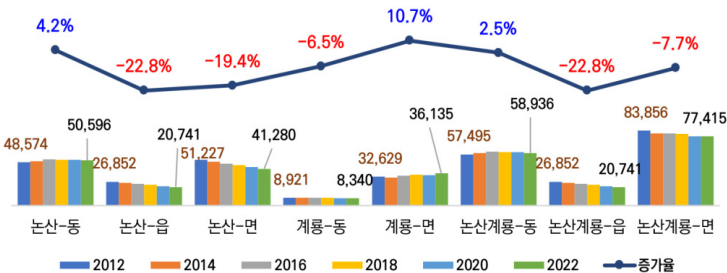
낮은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미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농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비슷하더라도, 신생아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³⁾[그림3]



[그림 34] 2012-2022년 논산·계룡 인구 변화



[그림 35] 2011-20221 논산·계룡 합계출산율



[그림 36] 2012-2022년 논산·계룡 읍면동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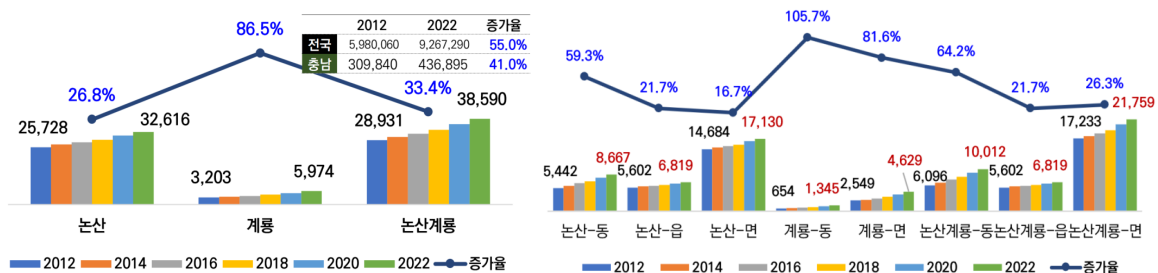
	2012	2022	증가율
전국-동	41,412,156	41,897,372	1.2%
전국-읍	4,376,585	4,877,483	11.4%
전국-면	4,996,814	4,400,426	-11.9%
충남-동	876,858	1,000,667	14.1%
충남-읍	489,673	497,706	1.6%
충남-면	662,246	624,664	-5.7%

3) '지방소멸'(마스다히로야, 2014/2015); 유선종·노민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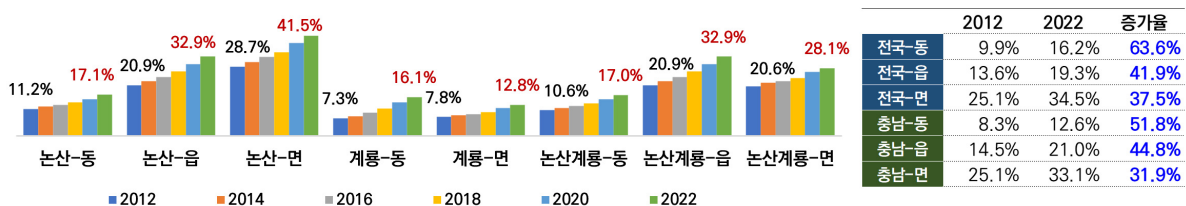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군지역’은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제 논산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시지역’이 소멸위험단계로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4) 서울과 인근의 수도권은 과밀화가 심화되지만, 지방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리스트벨트’ 5)화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의해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며,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그 진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 다방면에서 인구 변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논산과 계룡 지역 모두 ‘고령사회6)’에 진입하였고, 읍·면지역은 ‘초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5]와 [그림6]에서 보듯이 계룡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낮으나 노령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산시 지역의 노령화 증가율은 충남의 평균보다 낮으나, 노령인구의 비율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이미 고착-지속-심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 2012-2022년 논산·계룡 노령인구(65세 이상) 변화



[그림 38] 2012-2022년 논산·계룡 노령인구의 인구대비 비율 변화

나. 논산·계룡지역의 학생 수 변동 현황

‘인구감소’는 ‘학생수 감소’로 이어진다. 각종 지표상으로 볼 때 학령인구 절벽은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을 야기한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교육체제 재구축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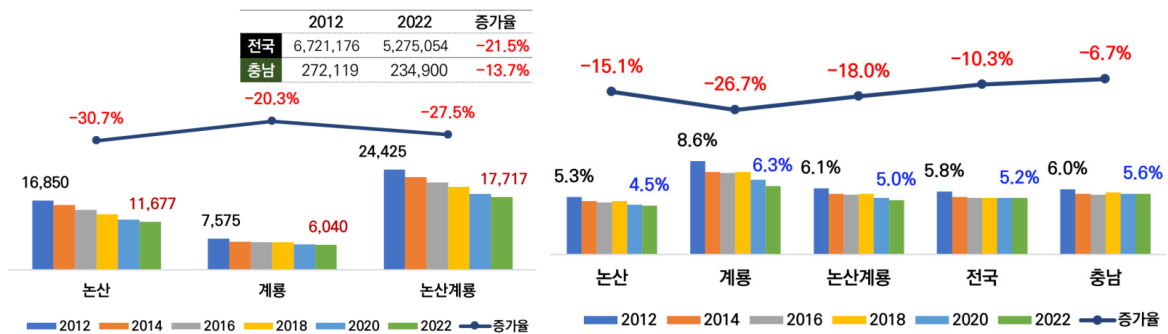
4) 한국고용정보원, 2020.7.7.: 2

5) 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로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6)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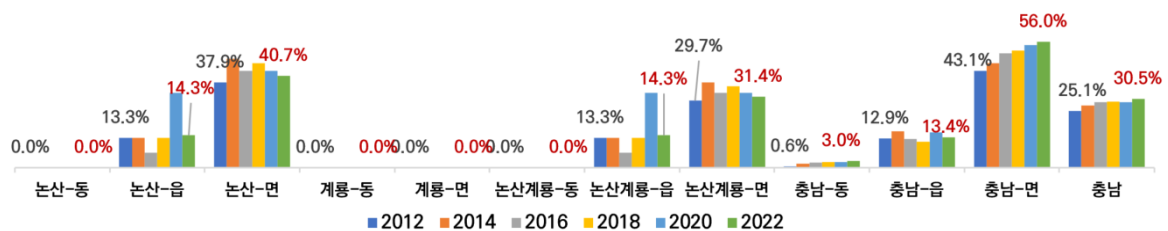
문을 닫으면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6~21세)는 1980년 1440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다. 더욱이 논산계룡지역의 2012-2022년 학생수 감소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충남보다 훨씬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그림7]

특히 논산지역은 전국의 -21.5%보다 크게 감소하여 -30.7%에 이르고 있으며, 계룡지역은 -20.3%로 충남의 평균인 -13.7%를 보다 감소폭이 크다. 인구대비 학생수 비율 역시 전국과 충남보다 논산·계룡의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노령화의 심화와 학생수 감소가 고착화 됨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8]



[그림 39] 2012-2022년 논산·계룡 학생수 변화 [그림 40] 2012-2022년 인구대비 학생 비율 변화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소규모화, 교육접근성과 물적자원 부족, 교육과정 협소화 등 다방면의 지역교육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곧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심화와 교육적 소외 현상으로 이어져 학교 소멸과 함께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게 된다.



[그림 41] 읍면동별 소규모학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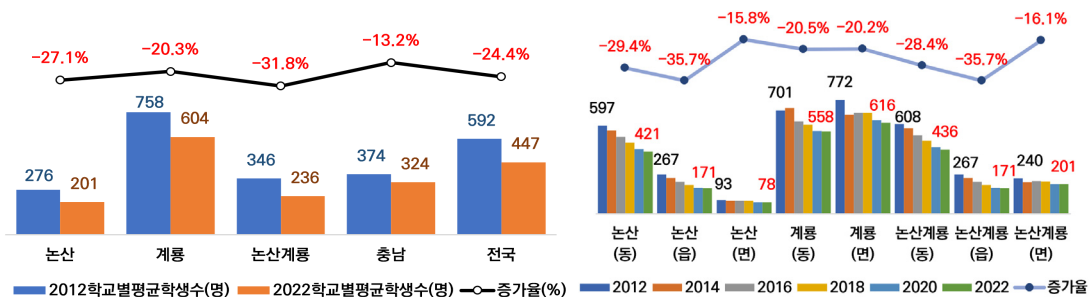
논산·계룡지역의 학교 수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그 수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계룡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지역 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 지역의 학교 소멸을 예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동일지역 내에서도 동·읍지역과 면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수가 지역별로 고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특히 논산계룡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강경읍은 논산시의 면지역과, 계룡의 면지역은 논산시의 동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내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9]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다. 논산계룡지역의 교육환경의 변화 상태

논산계룡지역의 2012년-2022년 간 기본적인 교육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별 평균 학생수 변화(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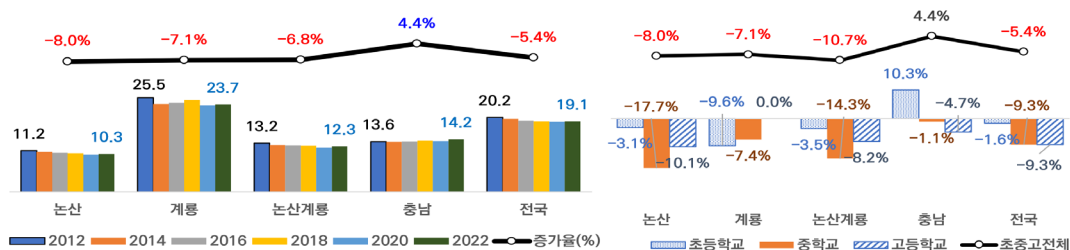
학교 소규모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학교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논산계룡지역의 충남평균 대비 학교별 학생수 비율 역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화의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한편 논산시 면지역의 학생수 증가율은 -15.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그림10] 그러나 이미 소규모화가 진행이 되어 고착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균 학생수가 78명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60명에 가까워 통폐합의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의 정도가 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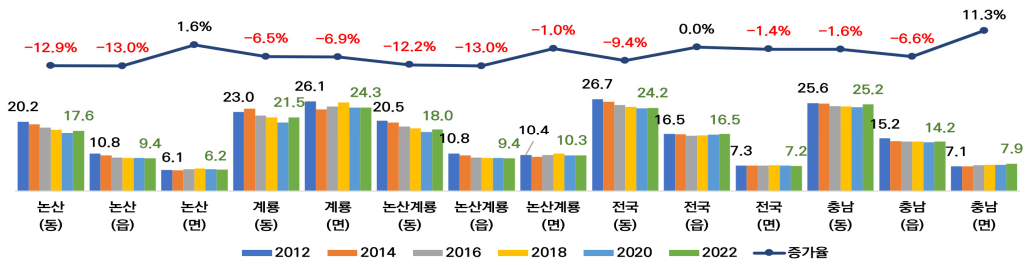
[그림 42] 2012-2022 학교별 학생수 평균 및 지역규모별 학교별 학생수 평균 변화

○ 학교당 평균 학급수 변화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 교육활동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충남의 학교당 평균 학급수는 2012년 13.2학급에서 2022년 12.3학급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논산과 계룡의 격차가 심하고, 전국에 비해 평균 학급수가 작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룡지역은 20학급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10학급에도 못미치고 있다.[그림11][그림12] 이와 같이 지역 간 학급수 격차는 교육여건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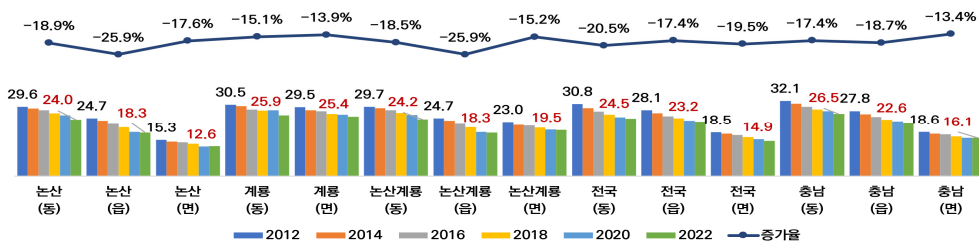
[그림 43] 2012-2022 학교당 평균 학급수 변화 및 초중고 증가율 비교



[그림 44] 2012-2022 지역규모별 학교당 평균 학급수 변화

○ 학급당 학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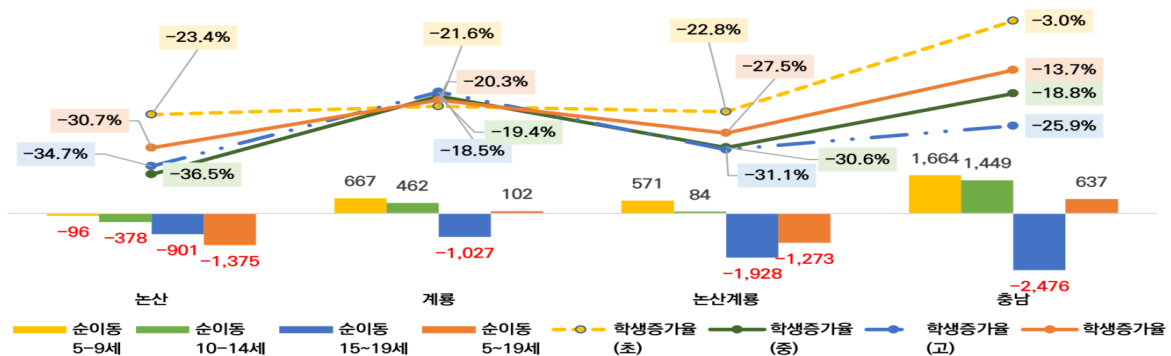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논산계룡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2년 26.1명에서 2022년 21.2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계룡의 동지역은 30.5명에서 25.9명으로 15.1%가 감소하였으나 강경읍은 24.7명에서 18.3명으로 25.9% 감소하여 그 폭이 가장 컸다.[그림13] 학급의 학생 수는 수업의 질과 학교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간 격차에 따라 교육정책과 대응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논산의 면지역은 동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그 동안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실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림 45] 2012-2022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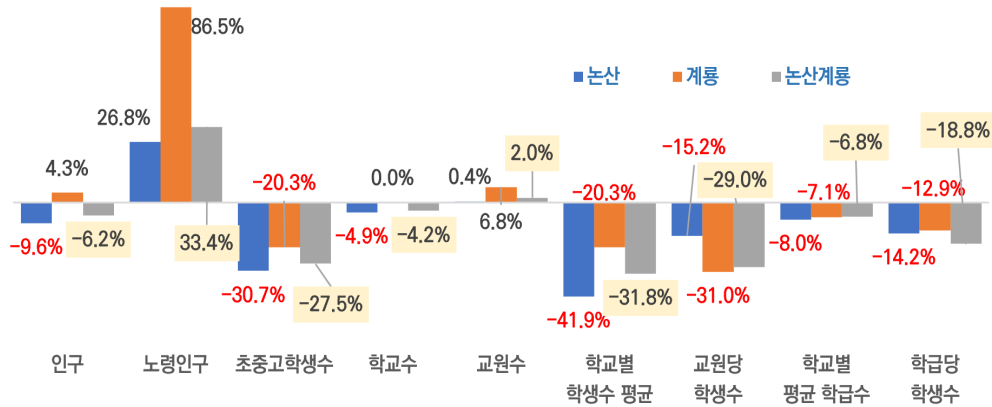
○ 지역변동과 교육환경의 변화 비교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저출산과 지역의 학령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겹쳐 있다. 이미 학령인구의 도시편중 현상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음 그래프[그림14]를 살펴보면 논산계룡지역내 연령에 따른 학령인구의 이동과 학생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6] 2012년-2022년 논산·계룡 학령인구 순이동과 학생증가율 비교

인구변동은 교육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상호작용 한다. 따라서 지역변동이 곧 교육의 변동인 동시에 교육의 변화가 지역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10여년(2012-2022년)간의 논산계룡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학생수 감소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 상황을 그래프를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학생수 변화-학교 교육환경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원수 증가 등에서 보는 바와 교육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교육환경 변화에 영향을 줌을 볼 수 있다.



[그림 47] 2012-2022 논산계룡지역 인구구조 및 교육환경 변화 비율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내(간) 격차의 양상은 다양하고 일정하지도 않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집중과 소외, 과밀과 과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논산계룡지역의 양상은 도농복합시인 논산시와 특수성을 가진 계룡시는 두 지역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소멸이 진행되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난망하다. 논산계룡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것과 서로 다르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의 회생 또는 재생을 위해서는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지역변동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방향

가. 기존의 지역변동 대응 교육정책 추진 결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변동(인구구조 변화, 학생수 감소 등) 대응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정효율성(경제성) 추구, 사업 기반의 재정 지원, 지역 연계 공교육 본질 추구의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관련 정책들과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정책 / 문제점 및 한계
재정효율성 (경제성)	◦ 소규모학교 통폐합 · 해당 지역의 공동화 초래, 지역소멸 가속화, 학생 수 감소의 해결보다 심화 ·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 공공기재인 학교 폐교로 지역민의 상실감과 소외감 ·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유발, 그에 따른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사업 기반 재정 지원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기숙형 고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등 · 지역(농어촌)의 일상인 생활자환경을 자연체험학습,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 도시 중심적 관점으로 농촌지역을 각인시킴으로서 농촌환경에 대한 고정적 인식 및 낙인 효과 초래 · 농촌교육을 자원의 부족으로 설정하고 교육복지의 시혜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관행적 추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농어촌 지역 특별 전형 등
지역 연계 공교육 본질 추구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정책 · 지역주민의 학교 참여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추구하여야 할 본연의 방향에서의 접근 ·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진행으로 활동에 참여할 주민과 교육 및 조직 자원 다양성 부족
공동사항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 대응 미흡과 관행화 경향 · 친환경적 공간과 넓은 교정, 용이한 개별화 수업 환경과 효율적 상호작용과 피드백 가능 등 학교의 특징점을 특성화하지 못함 ·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학교 인근의 지원이 없는 소규모 학교의 위축 현상,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 의존도가 높은 점 간과 ◦ 지역의 회생 또는 재생에서의 정책 마련 미흡 · 학교 회생, 재생은 지역의 재생과 동일선상에 있음, · 학생 수 감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교육으로만의 관점으로 접근 · 일시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접근 미흡

나. 지역변동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농촌의 교육이 도시의 교육보다 모든 점에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농촌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몇몇 제한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학교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응집력, 학교혁신의 용이성, 운영 체제의 유연성,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 정서 및 인성교육의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면 작금과 같은 변동의 시기와 전환기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자산이다.

이러한 지역의 자산을 살리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의 회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련 정책의 한계점 등을 성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변동이 가져온 교육의 실태와 위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책 방향
교육지원 청 기능 개편	◦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의 역할 분담과 교육지원청의 위상 강화와 기능 개편으로 교육자치 체제 정립 · 지역내의 학교 간 또는 학교군 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별 교육자원과 공간의 공유 · 역할 분담이 가능한 협력체제 구축, 업무 간소화를 위한 지원체제 중심으로 개편 · 교육장 임기제, 교원 · 교직원 인사자율권 확대, 자율 정책 추진 권한 부여 등 위상 강화와 책임 부여
선택적 학교체제 구축	◦ 지역수준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택적 학교체제 기반 구축 ·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유형 및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간 또는 학교급 간의 단절과 분절이 아닌 교육과정의 통합과 분리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학교체제 구축과 학교 유형 및 교원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 지역과 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교가 독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노력 필요
학생 학습권 보장	◦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지역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의 문화, 생태,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교육과정과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기초교육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과 관련 인적, 물적 자원 지원 확대 및 실효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차원으로 지속적, 안정적인 학교 특색화 지원 · 공공적 차원에서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가 공공인력 또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다시 배치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선순환하는 제도 시행 · 보편적 통학지원 체제 마련, 정규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확충과 학생관리 인력과 공간 마련 등 보육과 학생복지 기능 강화
교원 근무여건 개선	◦ 지역 학교 교원 복지개선과 지역중심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 지역 학교에 헌신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원 배치와 교원 인사제도 마련과 함께 교원의 정주여건 확충 및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우수 교원 순환을 위한 관사 및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지역 활동 여건 조성 · 지역에 대한 전문성 제고 위한 연수 및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 활성화 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학교의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시청 등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재생과 회생을 위한 공동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 ·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한 행 · 재정적 협력과 상호 지원 활동 확대

4.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유형과 교육과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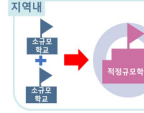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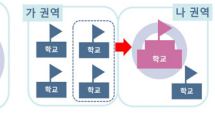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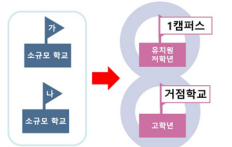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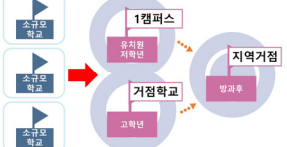
지역변동에 따라 농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소규모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과 구도심지역의 과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체제 재구조화 또는 통폐합 등을 통한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에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 모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배경과 유형, 그리고 모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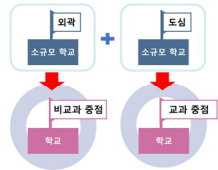
가. 추진 배경

- 학생 수 감소는 작은 학교(60명 이하) 지속 증가로 교육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작은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의 자연적인 감소에 의한 자연 폐지를 대처할 방법 강구
- 지역의 인구 지형 변화(저출생,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 증가 등)가 유발한 교육적 문제 상황, 위기 지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의 설계 필요
- 교육 공동화에 따른 학교와 지역 공공 복합시설 구축·활용방안, 미래사회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의 변화 도모

나. 적정규모학교 유형

- 공통 적용사항
 - ▶ 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 간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우선 추진
 - ▶ 통합 후 유휴학교(시설) 활용과 폐지학교의 역사성·상징성 등 기억공간 확보
 - ▶ 통학 또는 이동 편의 차량 지원과 기존 학교 용지에 통합학교 배치
- 학교 유형

유형	개념	형태
일체형	◦동일지역·동일학교·학교급 간 통합, 복식학급이 운영되거나 학생 배치계획상 3년 이내 통학구역 내 학생이 없을 경우 폐지하여 통합배치	1개교 통합  2개교 이상 통합  통합 이전 균형배치 
학제 통합형	◦동일 또는 인접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각각 통합 운영하는 형태	동일지역 내 2개교  인접지역 내 3개교 

유형	개념	형태
도농 연계형	◦도심지역의 소규모학교와 외곽(농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학교의 통합	
학교시설 복합화형	◦원도심지역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2~3개 학교를 통합하여 중심학교로 육성, 비 중심학교는 학교시설 복합화 구축	학교 단독형(교과+체육·예술공간)학교+복합(노인복지+청년창업) 
학교급 통합형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교급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	초·중 통합 초·중·고 통합  중·고 통합(소규모 중학교는 1개교 이상) 유·초·중 통합
지역 자립형	◦도심 인접지역의 초등학교(1개교 이상)와 중학교를 동일급 통합 또는 학교급 모두 통합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속 학교 조성	동일 지역 내 2개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통합 동일급 통합형(학교+공공주택) 통합형(마을 속 학교) 
지역 자율형	◦여러 제시한 모형과 달리 지역 내 적정규모화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유형을 자율적으로 제안	중학교+여중학교 공립중학교+사립중학교 

다. 교육과정 모형(요약)

○ 공통 적용사항

- ▶ 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 ▶ 교육 열의·전문성을 발휘할 교원 확충을 위한 탄력적 인사제도
- ▶ 지리적 장벽을 초월한 첨단학습시설 구축, 온라인 학습플랫폼 활성화

○ 모형

유형	개념	형태
무학년제	학년 구분 없이 학습자의 발달 정도와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학습집단을 구성하는 방식	초등학교: 교과의 경우 학년(군)으로 교과 편제 중학교: 학년군 교과편제 불가 고등학교: 학생선택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 학년(군)을 통합 운영
학교와 마을	마을이 학생들의 삶의 배움터가 되고 학교가 마을의 터전이 되는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급간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유형	개념	형태
결합형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공동체 주관 다양한 행사를 교육행사로 전환하여 학교와 연계 운영
일반· 대안교육 복합형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 위주, 인성 위주,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기존 교육과 대안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과 마을의 직업이 결합한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통합운영 교육과정	학교급이 다른 초·중, 중·고, 초·중·고가 시설과 설비, 교원을 공유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초·중, 초·중·고 통합형, 또는 대안학교형 등이 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 학교시설 및 기자재 공동 사용, 예체능교과, 교 과지도에 전문성을 강화, 무학년제의 교육과정 연구 등 유연성 확보 필요
학습 공원형	지역의 학교들을 캠퍼스 형태로 연결하여 면 단위 전체가 마을과 결합하여 마을 안팎 학생과 어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마을	지역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유도 마을 주민의 주도하에 마을교육네트워크, 마을 교육 협동조합, 주민자치회, 지역단체 등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고 교육발전에 지속 적으로 협력 유·초·중 10학년을 연결하는 교육과정 및 면단위 전체가 결합하는 마을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플랫폼 학교 (혼합형)	작은학교 학생을 위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학년별 연간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매 차시 수업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을 갖춘 학교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진행 학생은 LMS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수업에 참여 하고 수업영역, 소통영역, 행동관리 영역으로 교사의 모니터링 필요 모든 수업은 녹화하여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도 차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

5. 나가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동, 기후환경위기 등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방식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또한 지역변동에 따라 많은 학교와 지역이 소멸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진행은 갈수록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환기적 요구와 상황의 급박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의 상황인식은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다. 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 각종 법령과 교육과정, 학교 시설, 인사제도 등 관련 교육환경과 제도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

육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 또한 소규모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한 아이는 혼자서, 몇 명이 고립되어 있다. 결국 학생들은 다양한 소통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통합의 의지는 퇴색되고 지역별, 학교별, 보호자 간 이해관계를 따져 통합 대신 대립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절차적 행정에서 벗어나 미래주도형 행정으로 적극 지원, 능동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학교, 보호자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의 합일체를 마련하여 적정규모 학교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급속한 지역변동에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공존, 공생을 위하여 학교 체제 변화에 적극 나서서 학교간 그리고 지역간의 협력적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역시 학교 교육이 지역의 회생과 발전의 바탕인 동시에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성공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삶이 연결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산계룡 적정규모학교 유형 구축 추진 현황

박 양 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논산계룡 적정규모 학교 유형 구축 추진 현황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소통과 공감 행복+ 논산계룡교육

논산계룡 적정규모 학교 유형 구축 추진 현황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정확한 미래예측의 결과는
후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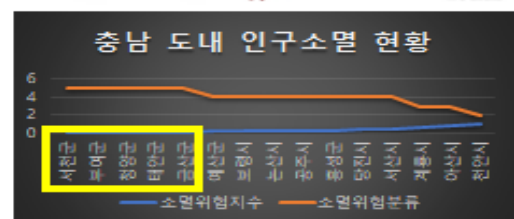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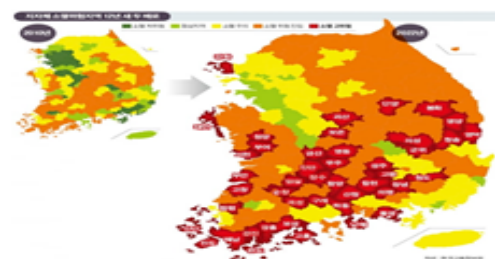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5곳)

- 서천, 부여, 청양, 태안, 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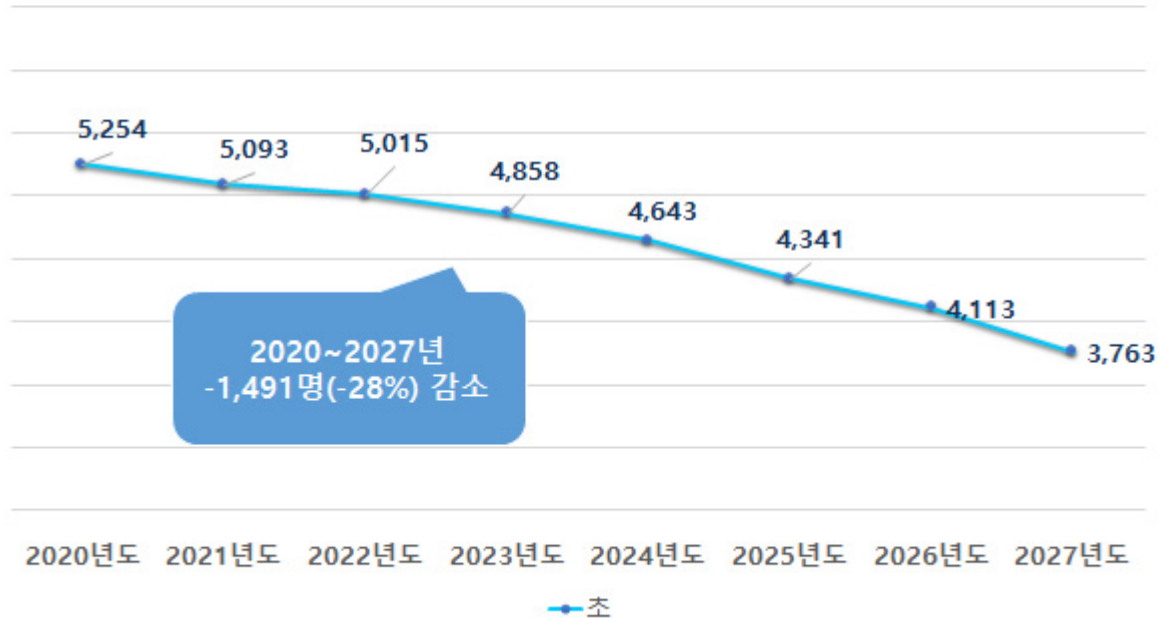
※ 소멸 위험 진입

- 계룡, 아산, 천안 제외 모든 지역



논산 초등학교 감소 현황(학생수 예측)

※ 단위:명 / 2022. 1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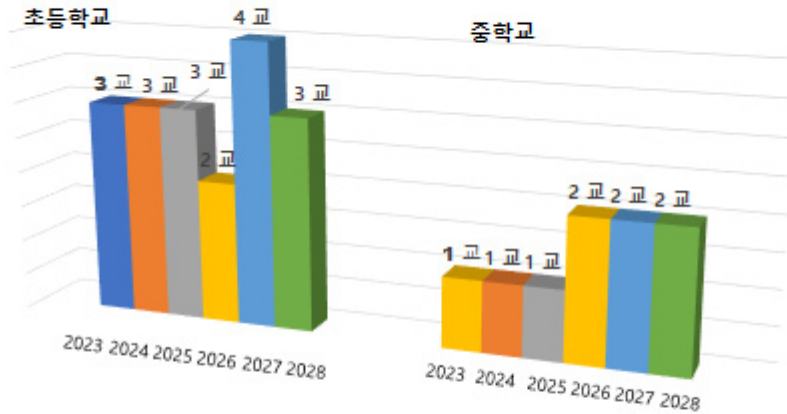
2024학년도 논산 입학생 10명 미만의 학교

학교명	입학생 수
구자곡초	6
연무초	6
원봉초	7
광석초	6
왕전초	4
상월초	5
부적초	7
감곡초	2
청동초	9
백석초	8
양촌초	8
가야곡초	4
은진초	6
이화초	7

학교명	입학생 수
가야곡중	5

논산지역 전체 학교 중
33%
(초14교, 중1교)

총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 수 추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감곡초 가야곡초 이화초 가야곡중	광석초 감곡초 이화초 가야곡중	감곡초 가야곡초 이화초 가야곡중	감곡초 이화초 광석중 가야곡중	광석초 감곡초 가야곡초 이화초 광석중 가야곡중	왕전초 가야곡초 이화초 광석중 가야곡중

논산계룡 행복, 미래 교육과정운영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협의체 구성, 학교특색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등 운영

혁신학교 초 4교, 중 4교, 혁신미래학교 초 1교

- 인공지능(AI) 중심 미래교육 지원

제4차 산업혁명 이꿈학교 운영(초 4교, 중 2교)

인공지능 이꿈학교 운영(초 3, 중 2교)

- 초등학교 공동학구제 운영 지역 학교 활성화

시내 과밀학교 과밀학급 학생 지역학교 이동



예측된 미래
주도적 대비 필요하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도시에도
통합학교를 만들게 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 정책의 한계점 및 대안

[한계점] 학생수 감소,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옴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한계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

[대안] 학생 학습권 보장, 격차 해소

- 지역 기반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유형 도입이 필요

[포괄적 협의체] 교육수요자 자발적인 요청

- 본청 연관부서(8개) 26명 구성
- 교지원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공동 협의체구성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그린다

지금 왜?

- 작은 학교 정책적 지원의 한계 (자연 감소)
- 지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필요
- 학교와 지역의 공공성, 적정규모학교 모델 찾기

충남의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0명 이하를
중점 관리



우리 교육청 육성 기준

- ❖ 대상학교를 학생수로 제한하지 않음
-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학부모 60%이상 동의 시 추진
- ❖ (제외) 1면 1교, 도서·벽지 학교, 개발예정지역 등 (단, 학부모의 동의시 추진 가능)
- ❖ 분교장 개편 신설 ※ 2025.3.1자부터 적용
 - 2년 간 신입생이 교직원 수 보다 많은 학교
 -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지역별, 환경(인구-물적) 특성의 분석

유형적용
지역공공
지원확대

적정규모 유형

맞춤형 교육과정

영-재정 지원

연사제도
플랫폼

도-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조성

컨설팅
현직배치
예산지원
기반조성

실현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확산

- 적정규모화 기준 적용
- 통합 후 활용공간 조성
- 통학 등 다양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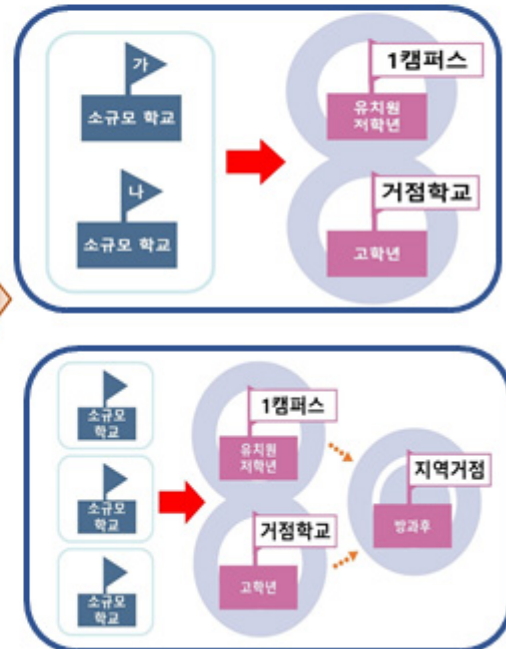


1. 학제 통합형
2. 학교급 통합형
3. 학교 복합화형
4. 지역 자립형
5. 일체형
6. 도농 연계형
7. 지역 자율형

적정규모학교 유형 개발 결과

1-1. 학제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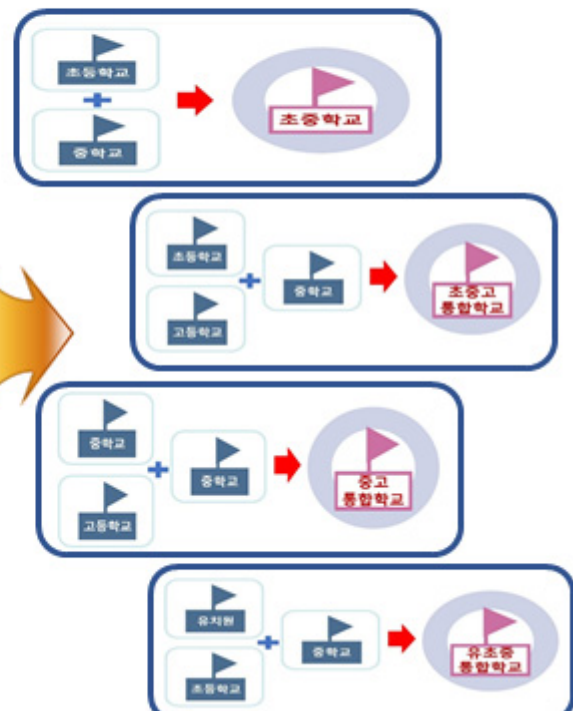
동일 또는 인접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각각 통합
운영하는 형태



적정규모학교 유형 개발 결과

1-2. 학교급통합형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교급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



II. 적정규모학교 교육과정 모형(안)

-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 탄력적 인사제도
- 첨단시설구축, 학습플랫폼 활성화



1. 무학년제
2. 학교와 마을 결합형
3. 일반-대안 교육 복합형
4. 통합 운영 교육과정
5. 학습 공원형
6. 플랫폼학교(혼합형)

적정규모학교 교육과정 유형(예시)

II-1. 무학년제

학년 구분 없이 학습자의 발달 정도와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학습집단을 구성하는 방식

경남-대의초등학교

2교사 1주제 담당, 무학년 주제중심 프로젝트 운영

강원-노천초 (공립대안학교)

교과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무학년 적용

전남-송산초등학교

1학기, 1년 장기 프로젝트 운영

적정규모학교 교육과정 유형(예시)

II-4. 통합운영 교육과정

학교급이 다른 초-중,
중-고, 초-중-고가 시설과
설비, 교원을 공유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경기-신나는 학교

6년제 기숙형 중-고 학교
무학년, 무학급, 무담임,
무성적표 새로운 시도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
지향

전남-통합형 학교

교사를 공모제 교장 선출
공간 통합, 위원회 통합
교원간 상호 협력과 지원
학교시설, 기자재 공동
활용과 유연성 강화

III. 적정규모학교 부서별 지원방안



1. 인사행정

2. 업무·재정지원

적정규모학교 부서별 지원 방안

III-1. 인사·행정(교원인사)

교육장, 학교장 공모 등 유인가 제공

교원 배치 기준 별도 신설(교감, 교과전담 등)

적정규모학교 정원의 유연한 적용(연차적 감축)

적정규모학교(통합학교)의 초·중등 교장 윤번제 배치

인사관리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방안 마련

적정규모학교 부서별 지원 방안

III-1. 인사·행정(행정, 공무원)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 기준 참고 증원 배치

통합학교-교육공무원직 정·현원 유지

폐지학교-교육공무원직 정·현원 감원 및 재배치(전보)

급식 운영 형태별 사업부서 기준에 따라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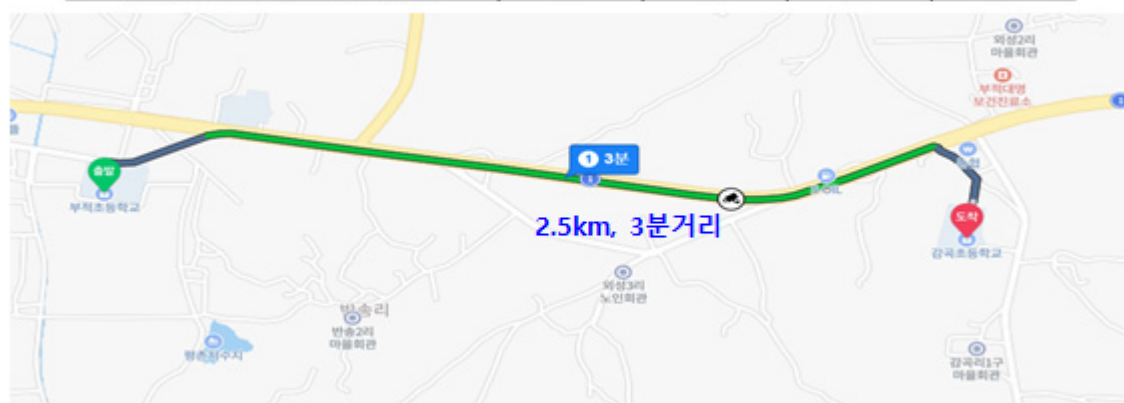
적정규모학교의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 정원 재배치

논산지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공모(안) 예시

1. 부적면(부적초, 감곡초)

- 2023년~2028년 예상 학생수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부적초	63	62	63	54	48	42
감곡초	23	16	15	17	15	14
2025. 3. 1.자 통폐합시 학생수			78	71	6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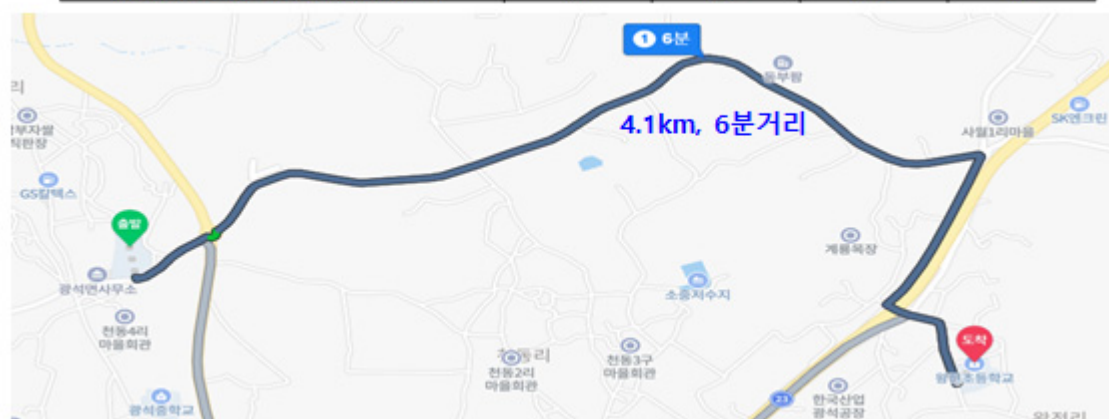


논산지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공모(안) 예시

2. 광석면(광석초, 왕전초)

- 2023년~2028년 예상 학생수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광석초	31	25	32	31	30	34
왕전초	49	48	38	34	31	24
2025. 3. 1.자 통폐합시 학생수			70	65	61	58



함께 만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기대 효과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으로 인구 자연
감소에 기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가능**
- 디지털 전화시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미래사회의 인재양성, 유연한 교수 ·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생의 학습관 확대**

[illegibl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